

예수그리스도의 말씀안의 진리 (1장)

지난번에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예수그리스도를 공부했지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두 공부했습니다. 이제 오늘 부터는 신약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진리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특별히 빨간 글자로 썼어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그 빨간 글자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새겨진 진리를 깨닫는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본문>마4:17

그 때부터 예수께서 전파하기 시작하여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하시더라.

주님의 첫 마디,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첫마디 하신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이 말씀 속에 어떤 뜻이 담겨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 한다면 옛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고 있을 때, 신정통치를 하실 때 특별히 다윗의 보좌에 왕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통치하고 모든 이방 민족들을 통치했습니다. 바로 신정통치,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신정통치 세상을 천국이라고 하고 영어로 kingdom of heaven 이라고 합니다. kingdom of God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 아니라 이것은 천국, 하늘의 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왕권을 주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아 이 사람들이 다스리죠. 그렇게 하는데 이 땅이 그 때는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범죄 했을 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성전까지 훼파되니까 성전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 좌정, 임재 하시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선지자도 없어지고 왕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이 땅이 사탄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이죠. 천국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한마디 말씀 속에 엄청난 뜻이 들어있죠. 먼저 침례요한이 6개월 전에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 요한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해요.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칩경을 평탄케 하라. 그의 길을 곧게 하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미리 길을 예비한 거예요. 빨간 양탄자를 깔아놓은 것처럼 주님이 등장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오셔가지고 회개의 침례, 세례를 베푸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붙잡혔습니다. 사자가 붙잡혀 죽을 때가 되니까 주님이 드디어 나타나시고,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여기서 비로소는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거라 이거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가까이 왔다.’ 라는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째는 바로 ‘내가 왕이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천국이 곧 온다.’ 영어로 보면 kingdom of heaven is near at hand. 손 너비만큼 밖에, 바로 온다. 너희들이 나를 받아들이면 바로 천국이 된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똑같이 회개를 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 땅은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고, 저기 위에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heaven in kingdom 하늘나라, 찬송가 있죠. 하늘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하늘나라가 있고 이 땅에 천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조건 하늘, 하늘 그러는데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 마귀는 쫓겨나고 하늘에서 이미 쫓겨났으니까 주기도문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라 이런 뜻이에요. 뜻도 모르고 주기도문을 줄줄 외우면 무엇 합니까? 뜻만 알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 속에 모든 기도가 다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까지 들었습니다. 그 기도 안하는 사람은 바보야. 엉뚱한 기도만 하고.. 아버지의 뜻이 먼저 이루어져야지요. 어느 분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제는 나 좀 봐 달라. 그랬다잖아요. 너희들 것만 하지 말고 이제 다 됐으니까 이제는 내 일 좀 해 달라. 바로 그거예요. 무슨 기도할 것 있습니까? 저는 기도 별거 안 해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하고 나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요. 우리는 종이니까 좋은 주인 앞에 가서 나불나불 할 것이 무엇 있습니까? 좋은 말씀만 하십시오. 하겠습니다. 또 왔습니다. 또 뭐할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주님이 응답 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20년 사역하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어떻게 할까요? 그저 가만히 있으면 돼요. 쉬면 돼요. 내가 뛰면서 할 거 없어. 주님이 하라는 것만 하면 100년도 1000년도 일할 수 있어요. 사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때로는 고생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런 뜻이란 말이지요.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바로 온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아셨지요. 왜? 아버지께서 아시고 아들을 보낼 때 종의 형체로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아들을 보냈지요. 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창세 이전에 사탄이 땅에 쫓겨 내려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결국 마귀를 붙잡아서 멸망시키고 마귀가 차지한 이 땅을 다시 찾아야하니까 죄 값을 치러야 하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신 것이지요.

요한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요단강을 건너서 침례 받으러 오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모두 제거 했어요. 제거했기 때문에 그 분만 믿으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옛날 구약시대에는 율법에 따라서 죄를 지으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을 짐승을 가져오면 자기가 목을 딱 따서 피가 쩍아악 나오면 제사장이 받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다 태워버리고 피는 쏟아버리고 내장 같은 것도 태워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제거 됐지요? 결국 주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들이 나를 영접하면 바로 천국이 이루어진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전부 말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다 얘기합니까? 말 못하죠. 이해를 못할 것을 아셨으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사이에 이미 계획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왕이 거부당할 것도 아셨고, 천국도 거부될 것도 아셨고, 거부되고 왕이 없어진다면 어떻게 돼요? 그 천국이 땅에는 더 이상 없고 믿는 자 속에 신비롭게 들어가서 교회가 될 것을 보셨고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도 없고 점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한다. 그 예수그리스도의 신부, 즉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말이죠.

예를 들면, 며느리도 말이죠. 며느리도 daughter in law, 며느리는 법적인 딸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독생자의 며느리, 자기의 며느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가 되는 것이지요. 이게 신비롭다고 했어요. 결국 이 안에는 앞으로 이제는 이스라엘에 잠깐 동안 천국이 없어지고, 그들이 천국을 거부하고, 한 2000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들이 나중에 찾을 것을 이미 아셨지요. 우리 사람으로서는 거부할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외치는가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래도 주님은 말씀 하셔야 하셨지요. 그 속에는 천국의 신비가 들어 있지요. 천국의 신비, 천국이 없어졌는데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비로운 거예요.

신비는 형태가 변한 거예요. 이 땅에 없어지고 사람 속에 들어간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그것은 우리 마음에 있다고 했지요. 이게 바로 그거죠. 이게 바로 그 소리에요. 신비 속에 감춰지는 거예요. 천국이 어떻게 우리 마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조그만 심장 안에 어떻게 들어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못 들어가지요.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비로운 거예요. 영적이 아니면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남에게 배워서 아는 게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내가 깨닫는 거예요.

성경에서 한마디만 깨달아 보세요. 한마디만 깨달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있으니.. ‘못 박혔다’가 아닙니다. ‘못 박혀 있으니’... I am crucified 그랬어요. I was가 아니에요. ‘못 박혀 있다.’ 쭈우욱 못 박혀 있다. 그것도 신비지요. 내가 어떻게 못 박혀 있어? 그런데 못 박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느낌을 가지고 내가 판단해. 우리는 못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못 박혀 있다. 우리도 이미 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요? 깨달은 사람은 알아요. 진짜 못 박힌 것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다. 죽었으니까. 어떻게 살아? 못 박힌 사람이 어떻게 살아?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돌아다녀요? 어떻게 화를 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거 하나만 깨달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일을 엄청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셔서 사람마다 깨닫는 게 달라. 너는 요것 깨닫고 요거해라, 너는 저것 깨닫고 저거 해라. 이렇게 하는 거지요. 하나를 깨달으면, 한 마디를 깨달으면 전체를 깨닫게 됩니다. 실

마리가 풀리는 거예요. 전체를 깨닫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몇 독 했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그대로 있어요. 말씀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지식은 교만케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마디 말씀이라도 진짜 깨닫지요. 그게 뭐지요? 모든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예요. 영생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게 되면 무서울 게 없어요. 뭐 없고 힘들어도 어떻게 되겠지. 한다고 그렇게 되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죠. 왜? 믿으니까. 사실 걱정근심 안하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이죠. 걱정근심 안하고 살면 몸은 자동적으로 건강해 지고 항상 소망 속에 있게 되고 세상사람들이 보면 미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왕 어차피 미칠 거 하나님의 말씀에 미쳐야지요. 세상에 미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세상에 미쳐 있잖아요.

어떤 분이 '아 하나님 큰 일 났습니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아 하나님 큰 일 났습니다. 이게 바로 깨달은 사람이 하는 소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신비들이 너희에게는 알도록 허락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누구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종교지도자들, 예수를 믿지 않고 생명이 없는 사람들, 겉으로만 그냥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전심으로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질 않습니다.

제가 여러 번 이야기 하지요. 낫 놓고 기역자를 몰라도 말씀을 깨달으면 그 사람은 주님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도, 신학박사가 되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신비가 알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또 주님 말씀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주님 따라가는 사람은 깨닫는 데요. 주님 따라가지 않고 내 멋대로 가는 사람은 절대 못 깨달아. 아무리 부흥사가 되고 난리를 쳐도 못 깨달아요. 그저 이 세상의 썩을 것만 얘기하고 이러다 끝나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기 원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기 원하였지만 듣지 못하였다. 귀로 듣지 못하였다는 게 아니라 알아듣지 못하였다. 그렇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말씀을 알아듣는 사람은 어떻게 되지요? 행하게 돼 있지요?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아빠 물 한 그릇 갖다 줄래? 그러면 아들이 아빠가 가져와요 그런데요. 그건 알아듣는 게 아니예요. 그렇죠? 우리가 꼭 하나님께 하는 식이예요. 그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물 한 컵도 안 갖다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바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왜?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안 가르쳤죠. 비유로만 얘기 했죠. 왜? 그들이 깨달으면 큰 일 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자탄을 아무에게나 주면 안 되는 거죠. 핵무기를 아무한테 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복 같은 꼴이 되는 거예요.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비적인 이 진리는요 아무에게나 알게 하지 않아요. 그거 아무에게나 알게 하면 그 사람이 막 써먹어서 유명해져서 예수님 팔아서

돈 벌게 돼 있어요. 세미나 하고 그래가지고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 분명히 제자들 12명, 한명은 마귀니까 11명에게만 얘기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전부 비유로 얘기 했어요. 거기 대중들도 많이 왔습니다. 먹을 거 원하는 사람들, 생명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썩어질 것들 때문에 오는 사람들, 요즘 말하면 직장이나, 재산이나 앞으로 출세할 것, 이런 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은 전혀 깨닫게 안 해 주죠. 종교 지도자도 마찬가지죠.

우리 관련된 말씀 에베소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사도바울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사도바울이 이렇게 교회에게 편지를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사도바울에게 거의 대부분의 신약 교리를 다 깨닫게 했어요. 베드로 같은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사도기 때문에 그에게는 한계가 있지요. 그는 천국 열쇠들, 유대인에게 복음 전하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의 문을 여는 역할을 했지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복음 안에 있는 모든 신비의 말씀들을 깨달아서 전한 사람은 바로 바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쥐가지고 바울이 편지하게 한 게 바로 성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교회에게 편지를 해서 이 신비를 가르쳤는데 오늘 지금 에베소서 3장 3절부터 보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이것은 그분이 계시로 내게 신비를 알게 하신 것이며 (내가 전에 간략하게 쓴 것과 같으니 너희가 읽을 때 거기서 그리스도의 신비 안에 있는 나의 지식을 이해하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비의 지식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5절 “그것이 성령으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지금 계시된 것처럼 다른 시대들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 지지 아니하였으니” 선지자, 사도들, 다른 시대에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왜 그랬냐? 6절 보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이 되며 그의 약속에 동참자가 된다는 것이니라.” 신비가 바로 뭐냐 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것은 신비가 아니죠.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이 어떻게 한 몸이 됩니까? 한 몸이 될 수 없지요? 피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한 몸이 돼요? 이게 신비죠. 그러니까 교회가 반쪽은 유대인이고 반쪽은 이방인이야.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상속자가 된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기업을 같이 누린다. 이것이 공동상속자야. joint heir죠. 이것이 바로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보니까

“이로써 그분의 능력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8절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 보다도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들 가운데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요함을 전파하게 하려는 것이라.”

9절 “또 예수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만물을 누가 창조했어요? 예수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 아들에게 창조를 다 맡겼죠.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어떻게 교제를 하느냐? 하나님과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니.”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기도로 교제하면 꼭 부자지간처럼 관계가 형성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아바아버지예요. 저는 혼자 기도할 때에는 누가 들으면 뭐 이런 기도를 하나? 싶은 기도를 해요.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라고 기도해요. 뭐 아버지한테 품 잡을 거 뭐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누워서 기도도 하고요. 기도하다가 졸리면 ‘감사해요’ 그러고 쿨쿨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다 깨면 또 기도하고 그래요. 그러다 성경 읽으라고 하면 또 읽고 그래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비의 교제입니다. 근데 왜 신비의 교제냐? 이걸 모르는 사람은 신비로운겁니다. 아, 저 사람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 똑똑합니까? 못하는 게 똑똑합니까? 요즘 같은 민주주의에서는 못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교통신다고 하면 이상하다고 해. 누가 이상한 거예요? 자기가 이상한거지. 그래서 이걸 신비라 그러는 거예요.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것이다. 신비의 교제를 해야 한다.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다.

10절 “이는 이제 교회를 통하여 천상에 있는 정사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다양한 지혜를 알게 하려는 것이다.” 11절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니라.” 사도바울은 예수그리스도라 하지 않았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라 하느냐? 이분이 그리스도 예수라 그럴 때는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리스도의 마지막 직분 왕, 하늘과 땅을 통치할 영광의 왕, 그래서 사도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렇게 얘기 했지요. 저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준 기도할 때에 꼭 그렇게 기도해요. 왜? ‘하나님’ 그럴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아니예요. 그렇죠. 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부릅니까? 통일교도 하나님 부르잖아요. 다 불려요. 저기 모슬렘들은 알라가 자기 하나님이래. 그게 하나님이래.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가짜라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거든. 그게 아브라함의 약속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그리스도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아버지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저는 기도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비로운 것이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왕국을 거절하고 그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2000년 동안 신비롭게 교회가 들어간 거예요. 신비롭게 묻혀있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면 한 몸이 되고 공동상속자가 된다. 예수님과 우리가 공동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예수님의 상속을 같이 공동으로 받는다. 이것이 바로 신비로운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비는 하나님이 알게 허락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신비주의자가 아닙니다. 신비주의자와 신비의 말씀하고

는 달라요. 신비주의라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내가 신비로운 체험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믿는 사람을 신비주의자라고 하고, 신비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굉장히 신비롭고 이것은 세상 지혜로는 알 수 없는데 내가 깨달을 때 바로 신비의 지혜를 가진 지식이에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고 그랬지요. 거기 누가 뭐예요? 아도나이에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여호와란 말이에요. 몸을 입은 거죠. 그분의 아버지가 자기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몸을 입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아요? 느낌으로 알아요? 몰라요. 배워서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몰라요. 이거 하나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거 하나만 알면요. 그분을 내가 주님으로 모시게 되어 있죠. 이것도 모르고 입으로만 주여주여 하는 것은 그건 아니야. 그건 종교인이죠. 아도나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뭐지요? 그분이 나에게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라면 죽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바울이 뭐라고 그랬지요? 나는 모든 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경을 기뻐한다. 고 했어요. 왜? 누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 약한 상태로 있어. 그렇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서 기뻐할 수 없지요? 모욕? 그리스도를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궁핍한 것, 돈 없는 것, 어떻게 기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왜? 주님이 그렇게 있으라고 하니깐 기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해받는 것, 어떻게 기뻐해요? 기분 나쁜데 그래도 주님은.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애긴 뭐죠? 그리스도의 그 일을 위해서 뭔가 내가 거기서 쉽게 말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느 영화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배우가 됐습니다. 주인공이 고생이 많잖아요. 그죠? 주인공이 약하고 모욕 받고 막 박해받고 돈도 없고 그러다 나중에 곤경에 처했다가 마지막 순간에 한방에 일어나서 했;ㅇㅋ니딩으로 끝나는 줄거리가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내가 약하고 모욕과 박해와 궁핍과 곤경 속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내가 거기서 기뻐하면서 그냥 힘들 때 눈물 흘려가면서 말이죠. 그냥 열심히 연기를 해야지요. 누구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독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감독을. 감독이 예수님이란 말 이예요. 감독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그 배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 나 그거 싫다고. 예를들면 세상 텔런트들은 말이죠. 아주 유명한 텔런트들은 당신 이번에는 가정부 노릇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도 이상하게 만들고, 옷도 촌스럽게 입고 그러면 내가 왜 그런 거 해야하느냐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우가 아니죠. 마 찬가입니다. 우리도. 있으라는 환경에 아주 거기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가난하게 있으라 하면 가난하게 궁상떨고 있는 거야 그냥. 이 사람이 바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돼요. 아무리 배우고 도를 닦아보세요. 되나? 안됩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동

국대학교 다니는 학생과 하숙을 했는데 같은 방은 아니지만 바로 옆방에서 하숙을 했는데. 잘생긴 형제였어요. 자기가 머리 깎고 중이 되려고 들어갔데요. 불당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왜 들어갔냐니까 하, 속이 하도 음란해가지고, 잘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막 따라오니깐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도저히 이러면 안 되니까 양심이 있으니까 좀 도를 닦으면 되겠지 하고서 불당에 들어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목상도 하고 목탁도 두드리고 뭐 이렇게 있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안에 있는 음란이 가만히 있으니까 더 음란이 나오지요. 그러면서 고백을 하더군요. 참선을 아무리 하고 도를 닦고 명상을 해도 그 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니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게 죄인데 밖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밖에 여자들 때문에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음란이 있으니까 내가 죄를 짓는 거지요. 아무리 여자가 이뻐 봐요. 음란한 마음이 없으면 그거 해골로 보여요. 요즘에 뭐 투시하는 거 있지요. 전시안 투시. 그렇게 해골로 보인다고. 아이고. 입 벌리면 냄새 나겠구나. 화장실 가겠구나. 품 잡지 말아라. 이렇게 느끼니까 전혀 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쁜 사람이 있으면 참으로 뷰티플하다. 하나님 참 잘 만들었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이 안에 내가 음란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밖에 안되? 예수의 피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씻어야 돼요. 우리 죄는 표범의 반점 같고 에디오피아 흑인의 검은 피부 같기 때문에 아무리 씻어도 안 되는데 가만히 새벽에 일어나서 불공드려도 안 되는 거죠. 그 속은 누가 알겠어요? 자기 밖에 몰라요. 그래서 지난번에 돌아가신 아주 유명하신 스님께서 부처는 도둑놈이다 강도다 이려고 죽고 나를 지옥으로 보낸다고 말이죠. 내가 지옥 아랫목으로 간다고 하고 갔어요. 근데 그걸 보고서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 때 가보면 그 때 깨달을 텐데. 그건 자료가 있어요. 저한테. 그 자료가. 성철스님인가? 법정스님인가? 하여튼 두 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아멘? 시인하는 거, 그건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인생은 바뀌어지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왔던 청년 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술집 왔다 갔다 하던 아이가 주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달라졌죠. 주님께 무조건 복종하잖아요. 돈이 무슨 문제예요. 35억이 그게 무슨 문제예요? 350억이면 무슨 문제예요? 그게.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정신이 하나 없는데. 사도요한이 주님 만나니까 혼절 했고, 다니엘이 주님 만나니까 혼절했는데 주님이 지금 어디 있어요? 말씀 안에 있잖아요. 이 말씀안의 주님을 못 만난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 감사하라고 그래도 뭐 감사하면 좋겠지 이려고 넘어가지 이것이 주님 음성으로 너 감사 안하면 큰 일 난다. 너 내 아들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면 말씀 읽기 싫은 거예요. 주님이 어땀어요? 지금? 안에 있어요. 아멘? 옛날 주님이 하늘에 계셨다가요. 태초에는 말씀으로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어요. 그 분이 어떻게 됐어요?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육신 안에 들어갔어요. 육신 안에. 우리가 보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지요. 이 말씀. 그래서 주님이 어디계세요? 지금? 말씀 안에 있지요. 이게 주님이예요. 주님 안에. 귀한 겁니다. 이게 신비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안에 있어요? 신비죠 이게. 이게 바로 신비의 지식이에요. 이게 뭐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거는 뭐 신비가 아니지요.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 감추었던 신비는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완전히 하나님의 새로운 것, 성령세례 라는 것, 성령침례 baptism with the holy spirit, 다시 말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피로 씻김 받아서 성령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데 보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신비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해서 모태에서 우리가 난 것처럼 성령 안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하는데 성령 안에 들어가려면 깨끗해야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육신도 썩을 육신이지만 그래도 깨끗한 피가 들어가서 섞여서 잉태되어 나오는 거 아니예요? 마찬가지로 깨끗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예수의 피로 씻김 받아야 되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영접할 때 그 피가 어떻게 됐어요? 양심을 정결케 하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게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스페니쉬 자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딱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래? 죄가지고 지옥 갈래? 그러니까 그 자매가. 아주 참 착하게 생겼어요. 근데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내가 배우기로는 하늘에 가는 사람이 극히 적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나오더라구요. 그래서 아, 이거 여호와증인에게서 배웠구나.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스페니쉬 성경을 더듬더듬 읽으면서 성경 공부를 한 20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기 보라고 여기 답이 있지 않느냐? 예수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고 안 믿으면 멸망한다. 간단하지 않느냐? 그래 오늘 어떻게 하겠느냐? 잘못된 것을 아니냐? 그랬더니 영접을 딱 하더라구요. 참 보면 말이죠. 말씀으로 해줘야 돼요. 전도지 가지고만은 안돼요. 말씀을 가지고 하나 하나 가르쳐줘야 돼요. 말씀이 생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다. 보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낳지 않았느냐. 여호와와 증인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성경,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해요? 카톨릭이 세력을 다 잃은 다음에 마귀의 작전이 뭐죠? 에텐동산에 찾아왔던 마귀는 중세에는 카톨릭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억지로 막 개종시켰지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그 프레스 디아스가 그거 예요. 억지로 개종시키려고 한 거예요.

3박4일 동안 잘 대우해주고 친절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성경을 못가지고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개종하라고 해요. 그러나 이것은 강제가 아니다. 안 할 사람은 안하고 할 사람은 하고 그러면 안 하는 사람은 그 날 저녁에 어디로 데려가 다 죽여 버리고 개종한 사람은 살려주고 이게 프레스디아스예요. 기독교에서 우리가 뭐 그걸 각색을 했는데 그러는데 여러분, 그 영적인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예요. 신비, 아니 보세요. 영화 관람하기 전에 코카콜라 광고하면 그것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사먹는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속아요.

마귀도 신비롭게 하고 하나님도 신비로운데요. 아 그거 캐톨릭에서 사람죽인거지만 우리야 다르게 해가지고 그런건데. 그러면 왜 성경을 안가지고 하느냐 말이죠. 프레스디아스 할 때. 왜 성경을 못가지고 가게 하냐고? 그게 영이 들어가서 그러는 거예요. 벌써. 각색을 하려면 완전히 해야지. 완전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모였는데 성경 찬송가 없이 들어 가냐 말이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찬송가 빼 놓으면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예배가 됩니까? 안되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12절 보겠습니다.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되고 폭력을 쓰는 자들이 힘으로 그것을 차지하느니라. 개역성경에는 ”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성경을 바꿔놓으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침노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나도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나 킹제임스성경에는 침례인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폭력으로 탈취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에 천국이 왔어요. 그래서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천국을 전하는 왕을 소개하는 그 사자, 메신저로 온 그 요한을 죽였지요? 그러므로 어떻게 됐습니까? 누가 죽였어요? 헤롯과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종교인들이 죽였지 않습니까? 결국은. 정사와 권세가 죽였잖아요. 마귀 수하에 있는 정사와 권세가 죽였습니다. 그렇지요. 폭력으로 죽인거죠. 완전 폭력이죠. 요한이 무슨 죄가 있어요? 폭력으로 죽인거라고요. 그래가지고 주님 때까지 그 순간까지 탈취되었다. 그 때 요한의 말을 들었다면, 이때도 소수의 사람은 들었어요. 요한의 말을 민족이 다 들었다면 천국이 왔죠. 탈취된 거예요. 폭력으로 탈취 된 거야. 폭력으로 마귀에게 탈취됐어요. 왕이 왔는데 왕도 결국 죽었어요. 요한 처럼 죽었어요. 그렇지요? 그래가지고 2000년이 됐어요. 2000년인 지금도 탈취됐어요.

그럼 누가 다스려요 지금? 모든 세상 나라들? 헤롯왕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예수님이 있습니까? 그 왕들이 예수님을 섬깁니까? 아니죠? 폭력으로 탈취돼 왔어요. 지금. 근데 소수 옛날 침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한 소수만이 믿음을 지킨 것처럼 마찬가지로 소수만이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어떻게 됐어요? 왕으로 모시고 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사도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이 올 뻔 했는데 이게 없어지고 신비롭게 그 천국이 오대양 육대주를 모형삼은 우리의 오장육부 속에 들어가 있던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어요. kingdom of god이 됐어요. 우리가 지금 오대양 육대주 아십니까? 오장육부.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질세계가 아니다. 이걸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이렇게 증거 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지금? 아멘?

근데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오시면 이 세상은 멸하고 주님이 왕으로 등극하면 어떻게 돼요? 이 땅도 천국이요, 하늘도 천국이요, 그렇지요?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요.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완전히 하나가 되고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고 특별히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신비 가운데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분을 영접해서 그의 신부가 된

사람들은 새 예루살렘, 거기 들어가 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특별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어떻게 했죠? 그가 거부 받으시고 천국이 소멸되고 아직도 마귀가 붙잡고 있는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신 후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자신이 살아계심을 무한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시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천국은 소멸됐지만 당분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 안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걸 가르친 거예요. 이게 신비로운 거죠. 주님은 한 2000년 정도 갈 것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왜 그 때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2000년 정도 후에 내가 와가지고.. 라고 말하지 않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 때는 얘기해도 뭔지 몰라. 그러니까 계시라는 건 점진적으로 계시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깨우치면 또 조금 주시고 조금 주시고 성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받고 성경을 다 못 깨닫는 게 뭔가 하면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자꾸자꾸 늘어가면서 성경을 차츰차츰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계시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성경전체를 다 깨닫기 때문에 성경을 덮어놓고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죠. 얼마든지. 며칠 밤 며칠 낮도 얘기 할 수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문제지. 줄줄이 사탕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막 나오는데. 성령이 막 가라사대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것 때문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부활하신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40일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1장10절에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니라.” 그리고 예수님이 참 재밌는 말씀을 하셨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진실로 내가 말하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천국에 들어간다고 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들이 회개하면, 너희는 회개 안하지만, 너희는 회개할 줄 모르지만, 그들이 회개만 하면 죄 용서 받고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성령 안에 들어간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회개 하지 않으니까. 먼저 들어간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죠. 누구든지 먼저 회개하는 자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또 사도바울은요 하늘나라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18절에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 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나를 보호 하시리니, 영광이 그분께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안에 있어요. 믿는 자 속에 있고, 믿는 자들이 모일 때 여기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신비로운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늘의 보좌가 여기 있다는 얘가지요. 옛날에 있던 그 지성소가 여기 있다는 얘기고,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영은 지성소에요. 성령이 계시니까 지성소고, 우리의 혼은 뭐죠? 성소에요. 그러니까 지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보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보고 깨닫지요. 그 다음에 몸은 뭐죠? 이진 뜰이에요. 뜰. 그러니까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뜰에 있는 거예요. 뜰에 있으니까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그렇게 살지요. 성령 안에 들어가서 말씀보고 조명 받아 기도해서 주의 음성을 들어야하는데 못 들어. 그러니까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밖에만 있으니까. 그래도 뜰 안에 있으니까 다행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으니까 혼이 구원받았으니까 다행인데, 주님과 교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더 많으니까 진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이 안에 있는 하늘나라가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잖아요. 하늘나라. 아주 거기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는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이 땅은 어떻게 돼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경의 단어 하나하나가요 필요 없이 어디는 천국 그리고 어디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 영어로는 kingdom of heaven과 kingdom of god이 그게 그런 뜻 이예요. 그게 신비롭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요 헛갈리지 않지요.

어릴 때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는데 천국이 어딘지 모르겠더라고. 천국, 천국. 천국이 어디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물론 천국 가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면 내게 안에 이루어진 천국,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같이 있는 거 아니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도 앞으로 휴거되는 성도들은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가 환란 끝난 날 주님과 함께 내려오잖아요. 내려와서 어디와요? 이제 주님과 함께 천국을 만들러 오는 거예요. 천국을 만들러 와가지고 그 천국에서 지금 이 땅이 아니라 천국에서 통치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천국에서 열 고을, 다섯 고을은 쉽게 얘기해서 ten city, five city 예요. 로스엔젤레스만한 city예요. 여러분. 어떤 미국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당신도 LA시장 할 수 있다. 한국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이게 우습게 들리고 그게 바보처럼 들리고, 엉터리로 들리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치할 때가 아니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정치해야 되는 거야. 아멘?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아이고 그거 정말 국회의원들 보세요. 주먹으로 싸우고, 그게 무슨 국회의원입니까? 지금은 정치할 때가 아니예요.

지금은 앞으로 주님과 함께 정치하기 위해서 준비할 때고, 앞으로 주님과 함께 정치하기 위해서 때로는 감옥도 들어가야 되고, 어려움도 겪어야 되고, 고통도 겪어야 되고, 궁핍도 겪어야 되고, 모욕도 받아야 되고, 세상 정치인들도 그거 하나 하려고 그러잖아요. 옛날 일제에 있을 때 일제치하에서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 한국이 반드시 독립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만주별관에서 얼마나 죽었습니까? 우리 아는 멕시코 선교사님도 자기 아버지가 자기 형을 만주별관에서 업고 다니다가 형이 얼어 죽었대요. 왜 그래요? 한국이 분명

히 독립하니까. 그걸 믿었거든요. 하물며 이 땅 전체가 독립할 텐데 앞으로. 누구 이름으로? 주님 이름으로. 미국이 아니라 주님 이름으로. 이걸 아는 사람은 만주별판 아니라 어디 파푸아뉴기니도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깨달은 사람이예요. 깨달읍시다. 이거 정말 깨달아야 돼.

옛날 저는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그러더라고. 아, 성도들이 말씀을 해도 하나도 못 깨달아요. 못 깨닫고 목사님하고 맨날 목사님하고 체육대회만 하자고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또 목사님은 성도들이 나갈까봐 말이 지 그 체육대회 하는데 나이 많은 양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축구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참 안됐다 그랬어.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못 깨닫는대. 나도 목회 해 보니까 그걸 알겠어. 깨달으면,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주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을 내놓게 돼 있어요. 아멘? 왜? 죽고자 하면 산다고 했으니까. 죽을 자리로 막 들어가. 살 자리로 안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이 있으라는데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요. 저는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끄꿍 앓으면서 주님, 아이고 아프네요. 아프네요.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만지시든지 만져주시지 않던지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네요. 그리고 한 잠 푹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고쳐주겠어요? 안 고쳐주겠어요? 고쳐줘요. 저는 88년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의료보험이 없어진 다음에 딱 선포했지요. 주님은 나의 의사십니다. 절대 난 병원 안갑니다. 죽어도 안 간다고 했어요. 한 번도 안 갔어요. 지금까지. 하지만 아프죠. 나도 왜 안 아릅니까? 무시죠? 무시할 때 어떻게 해요? 무릎 꿇고 가만히 있지요.

한국 보니까 내시경 하는데요. 내시경 하고서 그것을 꺼내가지고 간호사가 싱크대 가가지고 물로 막 헹구고 이렇게 걸어놔요. 그래서 기자가 가가지고 이거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럼 됐죠. 뭐. 어떻게 더 해요? 아니 이거 에이즈환자한테 들어갔다 나온 거면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알게 뭐예요. 이게 다 함정수사를 하니까 모르고 다 얘기한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병원기계를 너무 함부로 집어넣지 마세요. 여러분, 별거 다 들어갑니다. 많은 환자들이 병원 들어가서 병 얻어서 죽습니다. 여러분. 되도록 통원치료 하지 되도록이면 입원하지 마세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입원할거야. 어떤 때는 돈이 없는 게 뭐예요? 축복이예요. 돈이 없으면 주님만 붙잡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뱀에 물렸는데 어떻게 할 거야?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죠. 저 놈뱀을 쳐다보면 살고 아니면 죽는데 순간이예요. 순간. 여러분도 문제가 생길 때 마찬가지로예요. 순간이예요. 내가 놈뱀을 쳐다보든가, 세상을 바라보든가 둘 중에 하나예요. 어디를 쳐다보느냐 하는 순간에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앞에 무릎만 꿇으면 말이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과 얘기하기를 원하시잖아요. 왜 내게는 얘기 안하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듣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말씀 못하는 것이고, 들어도, 아니 주님이 말씀하셔도 이게 들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저는 말이죠. 이렇게 밥 먹을 때 있죠. 아이고 감사합니다. 밥 먹다 보면 주님이 말씀하셔. 화장실에 앉아서 이렇게 보다가도 주님이 말씀하셔. 샤워할 때, 특히 주일 날 말씀 딱 챙겨 놓고 주일 날 샤워하면 무슨 얘기 부터 해야 할지 짝아악 나와요.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할게요. 이려고 온다구요. 그리고 강단에 딱 서잖아요. 올라오기 전에 너 이 말부터 시작해라 그러면 예. 알았어요. 뭐 아주 쉬워요. 말씀 준비 그렇게 어려울 것 없어요. 멕시코 주말마다 가도 상관없어요. 말씀 준비 항상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목사님들은 세 가지 준비해야 되지요? 첫째 말씀 준비, 그 다음에 뭐죠? 이사 갈 준비, 세 번째? 아시는 분? 죽을 준비. 세 가지야 세 가지. 이 세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행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 속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다는 못했지만 이 신비를 깨달으시기를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